제9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5년 7월 25일(금)
14:00~16:00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주제발표】
윤강현(법무법인 세종 고문, 前 주이란 대사)

【종합토론】
마영삼(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안호영(前 주미국 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신석호(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김용휘(Yung Gallery 회장)

포럼기획 : 전쟁기념사업회 학예부
작성책임 : 서진아 학예연구사(02-709-3174)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9회 KWO 나지포럼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제9회 KWO 나지포럼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일시 : 2025년 7월 25일(금) 14:00~16:0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 록	13:30~14:00	•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 회 식	14:00~14:10	• 개회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주제발표	14:10~14:20	【사회】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발제】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前 주이란 대사) 【주제】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종합토론	14:20~15:20 (다자토론)	【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마영삼 (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안호영 (前 주미국 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김용휘 (Yung Gallery 회장)
	15:20~15:30	【Q&A】 질의응답
기념촬영	15:30~15:40	기념촬영
리 셉 션	15:40~16:00	환 담
폐 회	16:00	폐회 선언

〈목 차〉

【주제발표】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윤강현 ……7

【종합토론】

마영삼 (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25

안호영 (前 주미국 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29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33

김용휘 (Yung Gallery 회장) ……37

다자토론 ……42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윤 강 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前 주이란 대사)

전쟁기념사업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나지포럼 세미나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25. 7. 25. I 법무법인(유) 세종 **윤강현 고문**

목 차

I. 이란-이스라엘간 12일 전쟁 (6.13. 개시)의 성격
II. 전쟁 결과에 대한 평가
III. 이스라엘 공격 시기에 대한 이해
IV.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교전 관련 주요 시사점
V.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VI. 핵심 메시지

I. 이란-이스라엘간 12일 전쟁 (6.13. 개시)의 성격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I. 이란-이스라엘간 12일 전쟁 (6.13. 개시)의 성격

01 종교간 대결 : Negative

-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 전망
  -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가 관전 point
- 수니-시아간 역사적 반목

02 민족간 대립 : Negative

- 팔레비 정권 시절의 추억
- 기원전 6세기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Cyrus 2세가 바빌론에 잡혀 있던 유대인을 해방

03 적대적 체제간 투쟁 과정 중 전개된 Preemptive War

- 푸틴의 냉소적 비판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시각

4



II. 전쟁 결과에 대한 평가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II. 전쟁 결과에 대한 평가

01 이스라엘-이란간 대립 양상이 큰 전기를 맞이한 상황

- **은밀한 작전과 Proxy를 통한 대립에서 극적인 전환**
  - shadow warfare에서 overt confrontation으로
- **지난 4월(4.1)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습에 따른 상호 보복이후 직접 대립 첫 사례**
  - 4/13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건국 후 최초)
  - 4/18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방공망 타격)

02 이스라엘의 단기적 목표 달성

- **핵시설 타격 및 핵과학자 (11명 추산) 암살로 Break Time 연장**
- **강성 군 최고 지도자 대부분 제거 (아래 인사 포함 다수 장성급)**
  - Mohammad Bagheri 군총참모장
  - Hossein Salami 혁명수비대(IRGC)총사령관
  - Gholam Ali Rashid 중부군 사령관
  - Amir Ali Hajizadeh IRGC 공군 사령관

II. 전쟁 결과에 대한 평가

- Davoud Sheikhian — IRGC 방공군 사령관
- Esmail Ghaani — IRGC Quds군 사령관
- Gholamreza Mehrabi — 군총참모부 정보 부사령관
- Mohammad Kazemi — IRGC 정보부 사령관

03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

-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 여부는 미지수**
  - 특히 미국이 파괴한 Fordow 지역의 피해 상황
  - 농축 우라늄의 소재 (사전 이동설)
- **이스라엘이 예방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석 필요**
  - 이란의 핵개발 의지 좌절 여부
  - 핵협상 타결 시 정상국가로 변모할 이란에 대한 두려움



II. 전쟁 결과에 대한 평가

04 중동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는 미국을 붙잡는 데는 일단 성공

- **바이든 행정부부터 이란 타격을 희망했으나, 미국이 제동**
- **이란 타격을 위해서는 제3국의 지원이 필요**
  - F35 타격의 경우 중간 기착지 또는 공중 급유 필요
- **사전에 미국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초기 타격 후 트럼프 대통령 및 루비오 국무장관이 반응 등
- **MAGA 지지자 성향 및 미국의 전략을 감안할 때 조기 수습 불가피**

05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타격도 심각한 것으로 추정

- **언론 통제 하에서도 피해 상황이 부분적으로 노출**

III. 이스라엘 공격 시기에 대한 이해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III. 이스라엘 공격 시기에 대한 이해

01 친이란계 Proxy들의 약화로 지역적 판도가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전개

- 헤즈볼라와 하마스 지도부 괴멸
- 시리아 정권 교체이후 국경 통제
  - 시리아를 통한 공급 루트 차단
- 이란의 자금난으로 Proxy들에 대한 지원 축소

02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위기감

- 미-이란간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
  ※ 하마스 공격(23.10.7.)의 배경과도 유사 : 확대 아브라함 협정 임박설

03 Steve Witkoff 중동특사 임명 후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미국을 묶을 필요

- 이란과의 핵협상 재개
-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직접 인질 협상
- 시리아 제재 해제



출처: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ian-us-delegations-to-discuss-peace-framework-in-saudi-arabia-trump-s-envoy-says/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III. 이스라엘 공격 시기에 대한 이해

04 트럼프가 설정한 60일의 협상 시한을 초과하여 타격 :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

- 6.13.이 61일째 (4.12. 협상 개시)

05 타격 직전 IAEA 이사회 결의 (6.12) : 20년 만에 의무 미준수 결의

- 3곳의 인공우라늄 입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해명
- 핵사찰 검증 의무 미준수
- 408.6kg 가량의 60% 농축 우라늄 (5.17 기준)
  - 핵무기 10개 제조 가능
  - 2월(274.8kg)에 비해 3개월간 두배 가량 증가
- 러시아, 중국, 이란 등 3개국 반대

11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III. 이스라엘 공격 시기에 대한 이해

06 기만 전술

- 6차 협상 (6.15.)전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허를 찔려
  - 때려도 6차 협상 결렬 이후 관측
- 네타냐후 휴가 계획 발표
- 트럼프의 2주 추가 시한 발표 후 이틀만에 미군 개입

07 이스라엘 국내정치 상황

- 내각 불신임안 120표 중 61표로 간신히 극복 (6.12.)
-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

12

IV.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교전 관련 주요 시사점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IV.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교전 관련 주요 시사점

01 방공망 타격의 전범

- **스텔스 전투기인 F35로 방공망을 무력화하여 제공권을 장악한 후, F15등 여타 전력으로 본격적 타격**
- **이란의 낙후한 공군력으로 대응에 한계**
  - 제재로 인해 항공 분야의 경쟁력 상실



출처: http://daf.kr/df26/32720

02 후방 지원의 중요성

-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을 위해서는 제3국(?)의 지원이 필수적**
- **제3국 공군 기지 또는 공중 급유**
  - 사태 초반부터 이란의 경고 발신
- **인근 특정 국가의 역할에 주목**
  - 이스라엘과 맹방 (석유의 40% 수입, 시아파이지만 세속적)
  - 공군 기지를 이스라엘 공군에 임대 허가

※ Ebrahim Raisi 전대통령의 헬기 사고에 대한 단상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Ⅳ.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교전 관련 주요 시사점

03 전쟁의 최종 승리는 육군 (?)

- **지리적 요인으로 이란의 대응 능력 제한**
  - 육군 및 해군에서의 우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미사일로만 대응

04 다중 방공망도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데는 실패

- **후반부 방공망이 뚫린 상황에 대한 분석**
  - 방공 미사일의 재고를 감안한 제한적 대응 여부
  - 이란의 고도화된 미사일 체계 사용 가능성

05 벙커 버스터의 효과 (실전 검증 사례)

- **B-2 동원 "Midnight Hammer" 작전**
  - 벙커 버스터 14발 투하

15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Ⅳ.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교전 관련 주요 시사점

06 미사일 및 드론 전력의 중요성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산 드론 지원**
- **지역 국가들의 드론 전력에 대한 관심 고조**
  - 이에 특화된 방공망 필요성

07 전면전으로 확산을 회피하면서 제한전으로 관리

- **이란의 핵 및 에너지 시설에 집중하여 타격**
  - 공습을 피해야 할 지역에 대한 사전 좌표 제공설
- **약속대련 상황 반복**
  - Quds군 사령관 Qasem Soleimani 소장 바그다드 공항서 폭살(20.1.3.)후, 이라크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습 (1.8)
  - 이번에도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 14발 발사 (25.6.23.): 트럼프 대통령의 감사 인사

※ 인내심과 자존심은 어디까지?

- 탈레반 사령관 제거 사례
- 미-이란 협상의 작지만 중요한 요소

16

V.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V.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01 미국의 작전이 아시아로 전환 될 가능성 (중국 및 북한)

- **우크라이나, 가자, 이란 사태가 정리될 경우, 주 target인 아시아로 집중할 것으로 전망**
- **미 국방부, 군사 자산을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전개하는 것에 반대**
  - Elbridge Colby 정책담당 국방차관

02 예방적 타격 가능성에 대한 단상

-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 타격이 가능함을 시사 (후세인 제거에 이어)**
  - 미 국가정보국장 (DNI) Tulsi Gabbard 평가
  - Grossi IAEA 사무총장 평가 : 핵무기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존재
- **이란은 IAEA 추가 의정서까지 가입국**
  - NPT 체제 이탈한 북한과 대비
- **60%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 **90년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필요성 재론**
-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 가능성 평가**
  - 완성된 핵 능력, 다수 미국민의 한국 체재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V.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03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효과

- 트럼프의 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이미지 불식
- 제한적인 응징 조치가 가능성을 시현



04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 강화 전망 (미-이란 핵 협상 타결의 중요성)

- 핵을 포기했던 기존 사례들이 나쁜 기억으로 각인
  -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등
- 금번 이란 사태로 인해 이러한 인식이 강화될 전망

05 미-북 협상 등 주요 안보 이슈에서 우리나라 패싱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미국의 최대 맹방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정보 차단 사례
- 복수의 채널을 활용하는 미국의 협상 전략
- 전략적 유연성이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전개될 가능성
  - 미국이 개입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

19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V.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06 이란-러-중-북한간 협력 강화 가능성

- 이란 방공망 괴멸로 러시아산 방공망 도입 노력 예상
  - 라팔을 격추시킨 중국산 Jen 시리즈 도입 가능성 보도
- 미사일, 드론, 방공 분야에서 이란-러-북간 다양한 협력 가능
  - 독특한 이란의 군 통수권
-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러-중의 협력 강화 중
- 주이란 북한 대사관 활동 (무관부 등)
- 미국의 관세 압박이 Global South에서 입지를 변화

07 우리의 방공망 강화 필요성

- 우리나라 방공망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필요
- 이스라엘 실증 사례에 대한 분석 공유
  -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 탄도미사일 방어용 중거리 패트리엇, 성층권 탄도미사일 요격용 Arrow 미사일
  - 극 초음속 미사일의 회피 기동, 집속탄 대응 능력 등
  -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 유사성 감안
- 한국산 방공망에 대한 관심 고조 가능 (가성비 등)

20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V.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08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함의

- **우크라이나, 이란 사태를 거치면서 공중투하 전술핵의 유용성에 의문**
- **북한의 강화된 대공망 가능성 감안**
  - 서방 11개국 구성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보고
    - » 러산 방공무기체계 "판치르" 이전 보고
    - » 레이더+지대공유도미사일+대공포로 구성 : 한국산 비호복합과 유사 (레이더+비호+신궁)
- **잠수함 발사 미사일등 여타 옵션에 대한 검토 필요**
- **핵 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논의**
  - 동력로, 금속 우라늄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V.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09 방첩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노정 (나니아 작전)

- **장기간 암약한 스파이들이 사전 반입한 드론 등을 이용해 다수의 군 인사 및 핵과학자 동시 암살**
  - 중동 최대 정보 부서에도 불구하고 취약점 노출
  - 대규모 방첩 작전 진행중
- **Masoud Pezeshkian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하마스 정치 지도자 Ismail Haniyeh 암살 (24.7.31)**
  - 사다바드 궁전내 안가
- **이스라엘 내비의 우수성**
  - 이란 상황 파악 능력
- **수시로 사이버 테러 발생**
  - 공항 및 주유소등 마비시킨 전력
- **방첩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출처: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548

VI. 핵심 메시지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전쟁기념사업회 | SHIN&KIM

VI. 핵심 메시지

믿을 X 하나도 XX

XX은 그간의 경험과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쟁기념사업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감사합니다



윤강현 고문

T. 02-316-4322
E. khyun@shinkim.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www.shinkim.com T 02 316 4114 F 02 756 6226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유) 세종 및 작성 고문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유) 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고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론

【토론자】

마영삼 (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안호영 (前 주미국 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김용휘 (Yung Gallery 회장)

【토론문】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마영삼 (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1.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시각

- 홀로코스트 트라우마

○ "조금만 방심해도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존재

○ 생존을 위한 철저한 안보 체계 확보는 최우선 과제

○ 주변국 핵무장은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 -- 사전에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결의 (1981 이라크 Osirak 원전, 2007 시리아 Al Kibar 원전, 2025 이란 핵시설 폭격)

- 이란에 대한 인식

○ 이스라엘은 이란이 (1) 체제 생존 (2) 중동 패권 (3)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 재현을 목표로 삼아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함

- 전략적 판단

○ '저항의 축' 파괴 → 중동 내 세력 균형 붕괴 → 이란은 마지막 남은 유일한 위협 → 이스라엘은 오래 준비해온 핵시설 타격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 이 작전은 이스라엘의 군사전략(선제공격, 비대칭 응징, 나라 밖 전장...)에 부합

2. 작전 성과에 대한 평가

- 이스라엘의 안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귀중한 승리로 평가

○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효과

○ 하마스, 헤즈볼라의 핵심 전력 파괴, 시리아 정권 교체에 이어 이란의 핵시설 파괴는 역내 이스라엘의 안보지형을 크게 개선

- 국내 정치적 요소

○ 전쟁 지속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위기 회피용이라는 비판 여론 존재

○ 그러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서는 국민 80~90% 이상이 지지

- "언젠가는 반드시 타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존재
- 공격 성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현실적 평가
- 안보 관점에서 높은 정당성 인정

-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 상승 --- 단, 차기 총선 재집권 가능성과는 별개 문제

3. 이스라엘 다층 방공망의 위력과 한계

- 여전히 높은 방어 성공률

○ 2024.4.13 이란의 350기 드론/미사일 공격 시 **99% 요격**

○ 2025.6 공격에서는 **86~90% 요격** → 이란의 '섞어쏘기 전술'의 효과

- 이스라엘의 5중 방공체계와 미국의 3중 방공체계의 결합

○ 이스라엘(5중): Arrow-3, Arrow-2, David's Sling, Iron Dome, Iron Beam

○ 미국(3중): SM-3, THAAD, PAC-3

- 이스라엘+미국 군장비의 성능이 이란+러시아산 장비보다 월등하다는 평가

○ 그러나 이란 미사일의 고도화 (Haj Qassem, Fattah-1 -- 고체연료, 마하 12~15, 궤도 전환

등)로 일부 이스라엘 주요시설 및 민간 피해 발생

4. 정보전의 중요성

- 정보에 기초한 정밀 타격과 표적 암살

○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지도부 및 군지휘관, 핵 과학자들에 대한 표적 제거

○ 삐삐폭탄, 무전기폭탄 등 특수공격이 헤즈볼라의 저항 의지 약화에 결정적 기여

- 이스라엘 정보요원들이 드론 · 유도폭탄을 이란에 사전 밀반입하여 은닉

○ 동 장비로 이란 방공망 마비 → 공군의 제공권 확보 → 핵시설 정밀 타격 가능

- 이란의 핵개발이 지속될 경우, 보안 유지가 성패 좌우

○ 前 대통령 아마디네자드의 2024.10 폭로 (CNN튀르크 인터뷰)

5. 주변 아랍 국가들의 입장

-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

○ 미국으로서는 동 국가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 미국-이란 핵협상에 중대한 영향

- 이스라엘 전투기의 비행 경로

○ 이란 타격에 아랍국 영공 통과 필요 → 2025작전/ 1981 Osirak작전 경우에는?

- 굳건한 공조 체제 -- 2024년 요격 성공 요인: 이스라엘 + 미국, 영국, 프랑스 + 아랍국가

- 아랍국의 안보 최우선주의 -- 자국 안보 위협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

6.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구상

- Gaza 휴전 및 종전 추진

- 미-이란 핵협상 (8월말 시한)

○ 미국의 조건: (1) 핵무기 개발 금지 (2) 이란 땅에서 우라늄 농축 금지

○ 이란 외교의 성숙도와 현실 인식 ---〉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

- 트럼프의 '대중동평화구상'

○ 아브라함 협정 확대

- 우선 아랍국 중심: 기존 6국 +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여타 아랍국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궁극적으로는 이란까지 포함 고려

7.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 북한 핵문제 대응에 대한 반성

○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가의 존망과 민족의 생존을 걸고서 전쟁을 수행

- 이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
- 이스라엘: "어떤 희생에도 불구, 적국의 핵보유는 기필코 저지한다"는 결의

○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떤 각오로 임해 왔는가?

○ 1993년 북핵문제 발생 이후 7개 정부를 거치면서 실시한 비핵화 협상 결과는?

-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고도화 지속 →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해야

○ '당근정책'이든 '채찍정책'이든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 확대

○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강화: 특히 'Iron Beam' 에 주목

- 민방위 체계 강화와 시민 교육

○ 신속한 대피가 생명을 좌우: 사망자 대부분(27/30)이 방공호 지침 미준수

【토론문】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12일 중동 전쟁: 한반도에의 영향과 대응—

안호영 (前 주미국 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1. 향후 중동 정세

- 중동 정세는 우리 나라 에너지 수급, 상품 교역, 용역 수출에 중요한 변수
- 12일 전쟁 이후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계속 될 것

1) 6.24. 이후의 중동 정세

- 6.13. 전쟁 발발 후 확전에 대한 우려 확산
- 전쟁 장기화/중동 주둔 미군 등에 대한 공격/국제 테러/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 그러나 이란은 휴전을 갈망

2) 중·장기적인 불안정 요인은 해소되지 않아

- 핵무기와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이란의 집착
- 이스라엘의 안보 포비아/딜레마
- 가자,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등의 불안정 지속

2. 우리 나라 안보에 대한 시사점

1) 방공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

- 이스라엘은 전 국토를 보호하는 자체적 방공망에 더 하여 미군 방공망을 연계하여 이란의 쉬어 쏘기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 우리 나라는 북한 장사정포, KN-23 등 대폭 강화된 단거리 미사일, 러-우전 이후 증강되었을 드론 등에 노출되어 있어 방공망 강화가 시급
- 나토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의 감시 자산과 요격 자산을 연계하여 운용하는 integrated MD 도 검토할 필요

2) 지휘·정보 (C4ISR) 능력 강화

- 이스라엘이 개전 초기부터 이란 핵시설, 군사 시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정밀 공격을 감행한 것은 뛰어난 정보·지휘 능력에 기인
- 우리 나라는 최근 425 위성, 저 궤도 위성 등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C4ISR을 미군에 크게 의존
- 북한의 핵·재래식 능력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지휘·정보 능력의 대대적인 강화가 필요

3)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한 신중한 접근

- 미국은 제 2기 트럼프 집권 이후 우리 나라에 대하여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 경비 증액, 주한 미군에 대한 유연성 제고 등을 제기. 미국조야에서는 주한 미군 축소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 현재는 '전작권 반환'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흡한 방공망, 정보·지휘 능력을 강화하면서, 2023년 4월 출범한 핵 협의 그룹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1) 비핵화에 미칠 영향

- 미국이 벙커 버스터로 직접 이란을 공습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핵 무기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
- 한미간에 비핵화의 목표를 공유하고, 핵협의그룹 (NCG) 을 더욱 강화해야

2) 북·러 관계

- 북·러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것이 일반적 분석
-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과 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며, 러시아 드론 생산 공장에 북한이 2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
- 다른 한편, 평양으로서는 ① 북한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인 이란의 위기에 러시아가 구두 지원 이상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점, ② 이란 무기의 주축을 이루는 러시아 무기 체계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무력했던 점 등 러시아와의 협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할 요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음

【토론문】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을 설명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이론과 개념—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1. 개요

- 2025년 4월 25일 제8회 나지포럼에서 토론자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였음.
- 본 토론문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상기 관점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간략한 case study를 시도.

2. 이론과 개념 및 사례 분석

1) 제8회 나지포럼에서 제기한 이론과 개념

공격적 현실주의 :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 당시 필자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국제정치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나타내며 협상과 거래를 중요시한다는 점은 지켜볼 대목”이라고 지적하였음.
- 이번 이란 폭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이론 :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예일대 교수

- 당시 필자는 '역외균형' 이론을 설명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잠재적 지역 패권국의 부상을 막도록 하며 미국은 때에 따라서 바다를 건너 개입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였음.
- 이번 사례에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가 아닌 중동에서 이란이라는 지역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동맹국을 앞세워 대응하다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중동판 역외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2) 제9회 나지포럼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이론과 개념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 C. V, 클라우제비츠

- 프러시아의 장군이자 전쟁철학자인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음.
- 이번 사례에서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협상이라는 정치와 외교의 과정에서 핵시설 폭격이라는 군사행동을 단행한 것이며 이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정의에 부합.
- 이번 폭격을 일종의 전쟁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개념으로 추가 설명이 가능함.

전면전쟁(total war) vs 제한전쟁(limited war)

- 클라우제비츠는 이론상의 절대전쟁(absolute War)과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제 전쟁을 구분하였고, 현실에서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는 전면전쟁과 목표 및 수단을 제한하는 제한전쟁을 구분하였음.
- 이번 사례에서 미국은 이란 영토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핵시설이라는 제한적 목표에 대해 '외과 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을 단행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경우임.
- 다만, 그 실행 과정에서 실제 목표한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하였는지, 이란과 모종의 교감을 가졌는지 등 정밀성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 소지를 남겼음.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vs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해 안보 위협을 느꼈을 때 적의 공격 시설을

먼저 파괴하는 공격임. 이에 비해 예방타격은 적이 당장 공격할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최근 전력 증가에 따른 향후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선제공격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만, 예방 공격은 허용되지 않음.

- 2006년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67년 '6일 전쟁'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습은 임박한 침공 위협에 대응한 선제공격. 하지만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라크 원자로를, 2007년 시리아 원자로를 공격한 것은 예방 공격에 해당. 2025년 6월 13일 역시 예방 공격에 해당함.

3. 한국에 주는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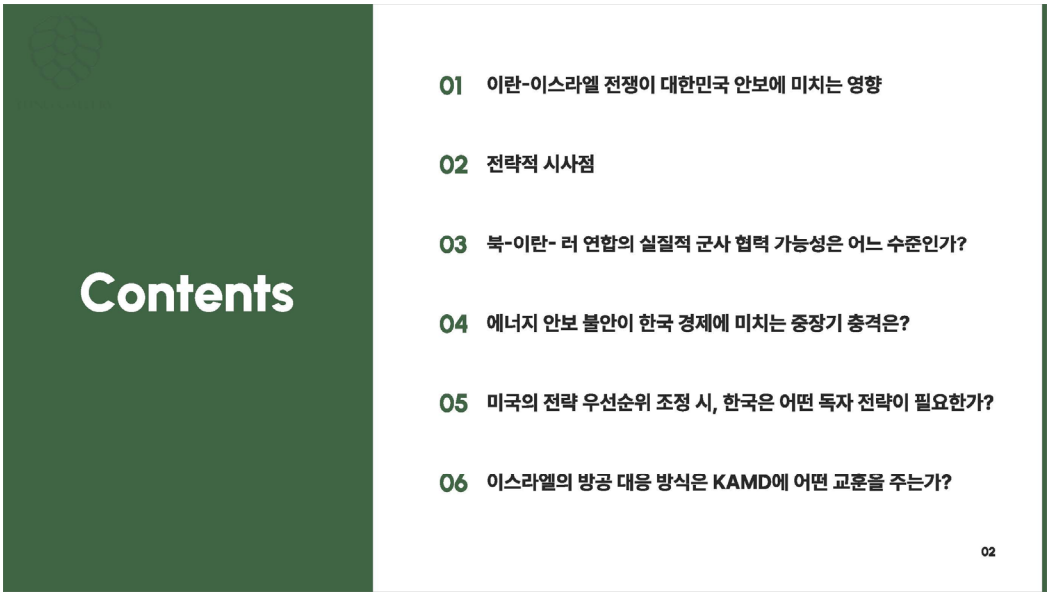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외정책은 현실주의적 이론체계에 의해 설명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일방주의와 즉흥적 정책 결정 패턴 등에 비춰 현실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이번 사례는 미국이 제한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동맹을 동원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1차 북핵 위기 당시인 1994년 영변 핵시설에 예방타격인 외과 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을 고려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는 당시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복 공격 능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공격을 북한 핵시설에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토론문】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김용휘 (Yung Gallery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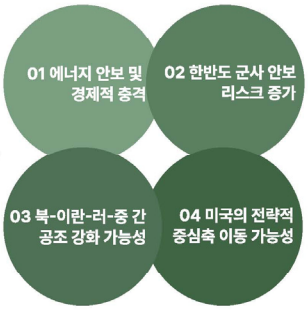




01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YUNG GALLERY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면전은 중동 원유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며, 이는 한국의 정유·석유화학 산업에 직접 타격 -국제 유가 상승 시, 무역적자 확대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도 높음



-미국이 중동에 병력 및 자산을 집중할 경우, 한반도 주둔 미군 전력의 전략적 공백 우려 발생
-북한은 이러한 타이밍을 활용해 도발 수위를 올릴 수 있으며, 전략적 오판 가능성이 커짐

-이란-러시아-북한 간 미사일, 드론, 방공 체계 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 -특히, 북한이 이란-러시아의 방공망 기술을 역수입할 경우, 한국의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무력화 가능성도 제시

-우크라이나-중동-대만·한반도 중 미국이 동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한반도 안보는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
-"중국-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언급되고 있음

02 전략적 시사점

YUNG GALLERY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

전방위 안보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	에너지 안보 다변화	미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 체계 재정비	국방산업 역량 확대 및 수출기회 활용
• 다차원적 위협(사이버, 미사일, 드론 등)에 대비해 통합 방공망 현대화 필요 • 북한과 이란의 군수품 연계 가능성에 대한 정보 자산 강화	•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의 대체 에너지 수입선 확보 필요 • 에너지 비축량 조정 및 에너지 시장 리스크 시뮬레이션 강화	• 한미 간 전략 자산 순환배치 일정 조율, 중동 개입 확대 시 한국 방위 약속 재확인 필요 이스라엘의 방공 교훈 공유 (의: Arrow, Iron Dome 운용 사례 분석)	• 이스라엘 전쟁에서 입증된 드론, 벙커버스터, 스텔스기 등 첨단 무기체계 수요증가 예상 • 한국 무기체계(천궁,k-방산)의 중동 및 Global South 진출 확대 전략 필요

03 북한-이란-러시아 연합의 실질적 군사 협력 가능성은 어느 수준인가?

YUNG GALLERY

- 이란-러시아-북한 간 무기공급, 군사기술, 전술 노하우 교류가 급속히 활발해짐
-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탄약· 미사일을 지원하고, 이란은 드론 및 탄도미사일을 수출
- 중동과 유럽 전장에서 입증된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

전략적 위험

1. 북한이 이란산 자폭 드론 · 순항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경우, 한국의 방공망 회피형 위협 증가
2. 러시아가 북한에 전술적 위성정보 제공 가능성
3. 북한은 핵 투발 능력을 더 다양화할 수 있음

한국의 대응
Conclusion

- 첩보 위성, 정찰 드론 등 ISR 능력 강화
- 북한-이란-러시아 기술 협력 실태에 대한 연합 정보 분석팀 구성
- 다자적 제재 강화 촉구 및 유엔 안보리 대응 외교 채널 유지

05

04 에너지 안보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 충격은?

YUNG GALLERY

- 한국은 원유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인접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큼
- 전쟁 확산 시 유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환율 불안, 소비자 물가 상승

파급 경로

1. 에너지 수입가 상승 →제조업 원가 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
2. 환율 급등→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3. 국가 신용등급 압박 우려

한국의 대응
Conclusion

- 비축유 확대, 에너지 공급망의 지역 다변화(미국, 카타르, 동남아)
- 전력수급 시나리오 재조정 및 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
- 해운 및 보험 리스크 대비책 마련 (특히 삼성화재 등 주요 해운 보험사 포함)

06

05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조정 시, 한국은 어떤 독자 전략이 필요한가?

YUNG GALLERY

- 미국은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한반도 등 다중 전선에 대응 불가능
- 중동 분쟁 격화 시,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재배치 가능성 존재
- 한국은 미 전력자산 공백에 대비한 자주국방 계획 필요

안보 리스크

1. 한미동맹의 전략적 집중도 저하→ 북한 오판 가능성
2. 대중국 억제력 공백 → 서해 · 동중국해 내 도발 우려

한국의 대응
Conclusion

- K-방산 산업 자강화 + 미사일 방어 자립도 강화
- 한미일 군사 공조 체계 보강(특히 정보 · 정찰 공유 강화)
- 한국형 3축 체계(KAMD, KMPR, 킬체인) 실질화 추진

07

06 이스라엘의 방공 대응 방식은 KAMD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YUNG GALLERY

- 이스라엘은 Iron Dome, David's Sling, Arrow3 등 다층 방공체계로 하마스·이란의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차단
- 한국도 유사한 위협(북한 자폭 드론, 초저고도 미사일, EMP 등) 에 노출돼 있음

전략적 위험

1. 다중 방공망 연동의 중요성 (지상-공중-우주)
2. 인공지능 기반 요격 지휘 체계 도입 필요성
3. 소형· 다량 공격에 대비한 고속 요격무기 필요

한국의 대응
Conclusion

- KAMD의 지휘통제-감시-요격 체계 통합성 점검
- 드론 요격 시스템 개발(RF재밍,EMP 등) 가속
- 국산화율 제고로 자주운용 능력확보 (특히 레이다 · 요격체)

08

결론

멀리서 터진 전쟁이 곧, 한반도의 전략 방정식을 바꾼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단순히 중동 지역 갈등에 그치지 않으며, 북한-러시아-이란 간 군사협력 촉진, 미국의 전략 피로 누적, 에너지· 경제 리스크 전이, 한국 방공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다층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쟁 이슈로 무역이 어렵지 않다면 가격 동결로 장기 계약을 할 필요가 있고 핵심국가와 같은 곳에서 수·출입이 아닌, 본토에 지사를 만들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같은 회사로서의 수·출입을 진행한다면 일부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09

YUNG GALLERY

【다자토론】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사회 :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前 주이란 대사
안호영 前 주미국 대사
마영삼 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김용휘 융갤러리 회장

▣ **안호영 대사** : 윤강현 대사님 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세 가지를 10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했다.' 라는 뉴스를 보시면서 동시에 그런 뉴스를 같이 보셨을 겁니다. '이 여파가 엄청 날 것이다.' 하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전쟁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중동 전쟁은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이란 핵무기와 시아벨트(Shiite belt) 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안보 포비아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 웨스트뱅크, 시리아, 레바논 모든 사태가 이스라엘 안보 포비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과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들이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을 할 수 없어서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보 및 경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합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방공망입니다. 저는 이 방공망 문제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중 체계 방공망을 통해서 전 국토를 방어하는 엄청난 나라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윤대사님에게 들은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 국토를 물샐틈없이 방공망을 구축하고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중동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이야기 하는

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 규모 등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전작권 문제 말입니다, 그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유럽 나토 사령관, 유럽에서도 나토 사령관들은 계속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1대는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보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한사코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핵확장 억제력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나토 사령관을 맡으면 그것이 보장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대사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억제력, 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은 아직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서 윤대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생각을 했겠다고 생각을 했으리라 봅니다. 또한 윤대사님이 말씀하신 이란의 판치르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건 결국 기본적으로 러시아 무기체계입니다. 그것이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북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주 회장** : 교훈은 방공망을 점검해야한다는 것, 전작권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이 동맹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믿을만한가입니다. 안호영 대사님이 짧은 시간에 윤강현 대사님 말씀에서 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를 하시고 팔레스타인 대표를 하신 마영삼 대사님이 귀하게 오셨는데 외교적인 상황에서 말씀하기보다는 앞의 두 분처럼 솔직하게 교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마영삼 대사** : 아주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펼친 작전을 통해서 '방공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상황을 5년 정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그런 요인으로 전쟁을 했다고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번에 한해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국민 80% 정도가 적극적

으로 지지를 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꼭 한 번 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한 성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란의 시설을 부술 만큼 부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관점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지지이냐 하는 것을 보면 매우 다른 차원에서 분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이 전쟁이 재작년부터 계속되면서 경제 부문이 크게 요동치고, 국제유가와 한국의 정치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2023년 하마스 공격을 받을 때 살짝 내려간 것 외에는, 이후로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수가 1700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3050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할 때다, 그렇게 되면 외국 투자도 많이 늘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시스템에 대하여 두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4월 13일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350발의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사실 연합국 측에서 99% 요격을 했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상당 부분 많이 놓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86~90% 요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요격률은 아마도 미국도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요격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아주 단시간 내에 섞어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안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은 5중 방어망입니다. 가장 바깥부터 애로우 3(Arrow 3), 애로우 2(Arrow 2), 데이비드 슬링(David's Sling), 아이언돔(Iron Dome), 아이언빔(Iron Beam) 5중 방어망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아이언빔이 사용되었는데 테스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아이언돔 1발에 사용되는 비용이 100만 불입니다. 애로우 3은 1발에 62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아이언빔은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한발에 3불입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요격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공망 특히, 아이언빔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해서 공동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야기하는 골든돔(Golden Dome)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같이 다 공동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보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장비가 사용되었는데, 해당 장비들을 이란과 러시아 장비와 비교해 보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스라엘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대사님이 정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표적 암살을 하는데, 동시에 3천 명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보전의 백미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헤즈볼라가 본인들 저항의 의지를 꺾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는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란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얼마나 보안을 유지하느냐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이란의 전 대통령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CNN 인터뷰를 하면서 말하기를, 모사드(Mossad) 첩자를 잡아내라고 총책임자로 선임한 인물이 바로 모사드 첩자였다는 것이죠.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에 있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핵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마음먹게 한 전쟁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적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입니다. 1993년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어느 한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방위 시스템, 이스라엘은 사이렌이 울리면 30초 이내로 방공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방공호에는 30명이 들어갔는데 3명이 죽었습니다. 이 3명은 사실 방공호 사용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장사포, 자주포와 미사일을 한 번에 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민방위 훈련이 되어있을 것이며, 서울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 **백승주 회장** : 더 이상 토론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영삼 대사님께서 '이스라엘 안보 체계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빔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한 발에 3달러라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언빔이 레이저로 드론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한발에 3달러라는 거죠. 3달러라니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작전 성공한 것이 어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하여 대답하신 거죠?

▣ **마영삼 대사** : 네

▣ **백승주 회장** : 아무튼 방공호 강조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저도 글을 써서 강조했는데 신동아에서 해당 부분을 잘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부자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에서 투자 일을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가인 융갤러리 김용휘 회장님이 주식이나 투자 환경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김용휘 회장** : 한국과 중동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 중동 지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국 기업이 직접 거래를 하고 지사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지사를 두고 하는 사업,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전쟁은 역시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한국이 지사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해서 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원자재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등지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지식이 쌓여 있지만 중동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아, 이런 기회를 통해 중동에 대하여 지식을 많이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승주 회장** : 감사합니다, 나중에 토론하실 때,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지 중동 국가들에서의 역할이 안 보이는데 왜 그런 건가요?

▣ **김용휘 회장** : 트럼프 정부의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 **백승주 회장** : '중동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철저히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을 하지 않는다, 커밍아웃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셉션 시간에 개별적으로 주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승주 회장** : 신석호 북한학 박사께서 미어샤이머 등 정치 이론을 통해서 토론문을 만드셨던데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석호 이사** : 토론문 자체는, 트럼프 2기 하의 정치에 대하여 이론으로 설명을 이어오는 연장선에서 계속 작성을 한 것이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듣다 보니 재미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 정치로 썼습니다. 북한하고 쿠바가 서로 다르게 발전한 과정에 대한 비교 정치입니다. 이번에 그 이란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두고도 충분히 석사학위 논문이 나올 거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비교입니다. 제목을 말하자면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에 관한 연구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피해서 핵개발을 했고, 이란도 피해서 했는데 제대로 개발하지도 못했는데 얻어맞았습니다. 두 국가가 핵개발이라는 것을 했는데 북한은 얻어맞지 않았고, 왜 이란은 얻어맞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왜 그러한지 설명하면 논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논문은 비슷한 상황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연구합니다. 두 나라의 핵개발이라는 전략 정책에서 나타나는 다른 점, 그리고 그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의 동맹국이 누구인가, 아마도 한국하고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국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보면 북한을 제가 25년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북한은 대화와 공세의 이중 전술이 극단에 치달으면서 충분히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완전히 비핵화를 할 것 같이 하다가 핵개발을 들키면 미사일을 쏘면서 공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하면서 국제 사회를 이간질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런 북한의 전술을 이란에 대입하면 이란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란은 북한처럼 교묘하고 지독한 이중 전술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맹국의 경우 미국의 동맹국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안보 포비아 이야기가 앞서 나왔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공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에 이번과 같은 공세를 미국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서울이 크게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이 반대하는 공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원국 문제도 토론 과정에서 나왔지만, 북한이 왜 저렇게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세를 한국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있는 한,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도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란은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멉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란의 핵개발과 북한의 핵개발은 서로 시기적으로는 다르긴 합니다. 이란이 얻어맞은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 교훈이 되었다고 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북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란, 너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는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못 살지만 핵개발에 성공했어.' 하는 정치 선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이번 전쟁은 두고두고 영화로도 나올 것이고, 드라마로도 나올 거고 논문의 주제로도 많이 나올 듯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대하여 작전을 펼치는 것을 보고 이전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작전하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것을 미리 듣고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작전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두 개 정도 받겠습니다.

(Q&A)

▣ **청중1** :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 법학부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방공망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방공망이 아직 취약하다고 봅니다. 방공이 취약한데 당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청중2** :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발제하신 자료 18페이지 4번에 북한의 핵에 대한 강화 전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라크 등 국가들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나쁜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라크하고 시리아는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미국이 상황을 잘못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란이 궁극적으로는 NPT 체제에 들어가야 하며 북한도 들어가야 합니다. 원산에 유엔기구를 신설해서 만드는 것이 핵폐기하는 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발제하신 대사님께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저도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을 가지려다가 포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차관을 할 때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바라크 전 총리가 아이언돔 도입에 관하여, 아이언돔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직에 은퇴하고서도 타국에 찾아와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는 사회에 환원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포럼에 많은 전직 대사님이 전쟁기념사업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국가에 헌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 **윤강현 대사** :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침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미-이란 간 핵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핵협상을 보면 이란은 핵을 평화적 사용하면서 제재를 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정상국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북한에 큰 울림을 줍니다. 예전에 핵협상이 성공적이었을 때, 전 세계에서 이란에 엄청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업 총회를 하고, 많은 기업이 모였는데 2,5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2,50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인프라 같은 큰 건설업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핵협상이 성공해서, 북한에도 이러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미래가 보장되고, 평화가 정착이 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앞의 국가들과는 차별화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의 국가들은 가상적국이 있습니다만 남아공은 가상 적국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통틀어서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이 손잡으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50여 개국에서는 이 두 국가의 압도적인 전력을 이길 국가들이 없습니다.

방공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처럼 전 국토 방공망은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국가적 자원을 넣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 시설에 대해서만 방공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설에서 사건이 터져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면 어쩌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보면 민간인 사상이 있었지만 핵심 시설은 보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심 시설을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국방전문가들은 이미 저보다 몇 수 앞서 착안하고,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마영삼 대사** : 이스라엘 방공망 시스템은 미국이 3중 방공망이고 이스라엘이 가진 5중 방공망해서 그렇게 8중 방공망입니다. 방공망은 저, 중, 고로 나뉩니다. 중고도가 천궁 2입니다. 그 다음이 L-SAM인데 우리는 아직 전략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이 사드(THAAD)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성주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서울이 커버가 되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2중 방공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한 것은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백승주 회장** : 이것으로 에피타이저 순서를 마치고, 본 리셉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KWO 나지포럼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안보

발 행 인 백승주
발 행 일 2025년 7월 25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174
편집위원장 서진아
편 집 위 원 서원주, 강지연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